

# “통일 되면 엄마랑 백두산 다녀올래요”

## ▶ 엄마 나라서 농구선수로 성공 김한별 가족

지금쯤 화합과 통합의 시대다. 국제결혼을 통해 이뤄진 다문화가족은 어엿한 우리 사회의 일부이자 함께 할 구성원이다. 이는 스포츠도 예외는 아니다. 종목을 불문하고 다문화 가족 출신 선수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스포츠동아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케이트토와 함께 다문화가족 출신으로 스포츠를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선수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여러 체육인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사회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다문화가족 어린이와 청소년, 부모들의 꿈과 용기를 응원하기 위해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여자프로농구 삼성생명 김한별(왼쪽)은 한국인 어머니 김성자 씨와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 태생이다. 출중한 기량을 앞세워 프로무대 입성 이후 태극마크까지 단 배경에는 모친의 든든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 어머니 김성자 씨와 포즈를 취하고 있는 김한별. 용인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 딸 김한별

미국서 엄마가 아시아인이라고 놀림도  
삼성생명 입단 제의 받고 너무 기뻐

### 엄마 김성자 씨

똥지 1등... 남편은 친밀처럼 아껴  
2년만 똥다더니 태극마크까지 달아

다문화가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신생아 20명 중 1명은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수도 100만명에 이른다. 이제 더불어 사는 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스포츠 분야도 마찬가지다.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선수들이 무대를 주름잡는 시대다. 특히 농구는 일찌감치 혼혈 선수들의 유입을 받아들였다. 여자프로농구 삼성생명의 김한별(32)은 대표적인 다문화가족 선수다.

김한별은 여자프로농구 무대에서 파워 넘치는 플레이를 즐기는 선수다. 신장은 178cm로 크지 않은 편이지만, 힘과 투지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이처럼 코트 위에서는 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그녀지만, 모친 김성자(63) 씨 앞에서는 애교 많고 사랑스러운 큰 딸의 모습뿐이다. 누구보다 끈끈한 애정으로 뽕뽕 무쳐 있는 김한별-김성자 모녀를 가을이 무르익은 용인 삼성 트레이닝센터에서 만났다.

### ●모친의 사랑으로 키운 농구 선수의 꿈

김한별은 한국인 어머니와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여동생(김한빛)도 있다. 7살 때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3년 뒤 김성자 씨가 토니 패스 워터(64) 씨와 재혼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김한별의 친 아버지는 2011년 세상을 떠났다.

김성자 씨는 “피닉스에서 살다가 (김)한별이가 7살 때 인디애나로 이사를 갔다. 엄마가 아시아인이니까 학교에서 ‘차이니스’라며 놀림을 당했다고 나중에 커서 말해주더라.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을 전혀 안했다”고 돌아봤다. “어릴 때부터 속이 깊고 점잖은 편이었다.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늘 1등이었다”며 어린시절을 회상했다.

김한별은 어렸을 때부터 운동신경이 남달랐다. 포레보다 체격도 크고 운동도 잘하는 편이었다. 김한별은 “같은 나이 대 애들 중에서는 내가 체격이 큰 편이었고 달리기도 제일 빨랐다. 그래서 애들이 날 건들지 못했다”며 “그 와중에도 엄마가 아시아인이라고 놀리는 애들이 있기는 했는데, 내가 참는 것 말고는 할 수 없지 않나.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부친은 친아버지는 아니었지만, 김한별을 누구보다 아꼈다. 특히 딸의 교육

에 공을 들였다. 인디애나 지역에서 가장 좋은 사립 중·고등학교로 진학을 시킬 정도였다. 김성자 씨는 “남편이 나보다 딸을 더 아끼는 것 같다”며 웃었다.

농구는 우연한 기회에 시작하게 됐다. 김한별은 “운동을 간 동생을 기다리다가 옆 체육관에서 농구하는 걸 구경하다가 흥미를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어머니 김 씨는 “애가 하루는 수영을 안 하고 체육관 가서 농구를 보겠다고 하더라. 그 후로는 자주 체육관을 갔다. 하루는 뒤따라가서 보니 큰 남자들 사이에서 공을 킵기면서 놀고 있더라. 그 때 ‘아, 애가 농구가 좋구나’하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 ●2년만 하겠다던 농구, 국가대표가 될 줄이야

어머니는 딸을 운동선수로 키우고 싶지 않았다. 공부도 잘했기 때문에 의사가 되길 바랐다. 그러나 농구선수로 재능이 워낙 뛰어났다. 농구 명문 인디애나 대학교에 진학해 프로농구 선수의 길로 접어들었다. 김한별은 “대학 다닐 때 하루는 에이전트를 통해 한국의 삼성생명에서 나에게 입단 제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너무 기본 좋았다”며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엄마의 나라에서 가족들을 만나고 한국 생활을 경험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성자 씨는 “처음에는 나한테 ‘엄마, 딱 2년만 프로로 쫓겨’라고 말하더라. 한별이가 농구를 너무 좋아해서 그러라고 했는데 그 때는 지금까지 뛰고 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웃었다.

김한별은 지난해 국가대표가 돼 태극마크도 달았다. 말 그대로 ‘가문의 영광’이었다. 올해에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했고, 남북 통일농구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북한 평양을 다녀오는 특별한 경험도 했다.

김한별은 “솔직히 국가대표가 될 줄 몰랐다. 국적을 획득했지만, 앰버 해리스(28)의 귀화를 추진하기도 했고 첼시 리(27) 사건도 맞물려서 내게는 기회가 안 올 줄 알았다”고 말했다.

특히 평양 방문은 가족들에게 자랑할만한 이야기였다. 김한별은 “엄마도 좋아했지만 삼촌, 이모들이 더 좋아하더라. ‘미국에서 자란 조카가 농구해서 국가대표가 되고 북한까지 다녀왔다’며 반겼다. 북한은 미국 캔터키 같은 분위기였다”고 돌아봤다. “평양에 미국 국무장관(마이크 폼페이)이 방문을 해서 에어포스 원을 볼 수 있었다.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는데 엄청나게 크더라”며 평양에서의 기억을 되새겼다.

에피소드도 있었다. 당시 방북단은 옥류관에서 평양냉면을 먹었는데, 이 때 카메라가 김한별을 향하자 이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사실 김한별은 냉면을 잘 먹지 않는다.

그녀는 “카메라가 와서 어쩔 수 없었다(웃음). 냉면을 잘 안 먹어서 옥류관 냉면이 맛이 어쩐지 잘 몰랐다. 그런데 먹기 편하더라”라며 웃었다.

여자농구대표팀은 이번 AG에서 남북 단일팀을 이뤄 나갔다. 이 역시 김한별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다. 북한 선수 중 로숙영은 “한별이 언니를 가방에 담아서 북한에 데려갔으면 좋겠다”는 농담을 할 정도로 우독 자신을 따랐다고 전했다.

김성자 씨는 국가대표 이야기를 하는 딸의 모습을 보며 마냥 흐뭇해했다. “한별이가 자랑스럽다. 나는 근처에도 못 간 북한을 우리 딸이 다녀오고 북한 선수들과 생활도 하지 않았나”라며 딸을 바라봤다.

이에 김한별은 “엄마 세대 분들은 언젠가 북한 방문 길이 열리면 가보고 싶다고 하시더라. 통일이 되면 엄마랑 같이 백두산에 다녀오고 싶다”면서 모친의 손을 꼭 잡았다. 용인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오는 12월 15일에 열리는 'XIAOMI 로드FC 051 X' 메인이벤트 포스터. 아톰급 챔피언 함서희(왼쪽)와 도전자 박정은의 타이틀매치가 열린다.

## 《여성부리코》 ‘로드FC XX’ 대진 확정 함서희 vs 박정은 빅뱅

내달 15일 051 대회서 타이틀 매치

로드FC가 XIAOMI 로드FC 050 대회를 개최한 뒤 약 한달 만에 다시 넘버링 대회를 연다. 이번에는 여성 파이터들이 흥행에 앞장선다. 여성부리코인 ‘로드FC XX’가 오는 12월 XIAOMI 로드FC 051 대회에서 열린다. 세계랭킹 1위 함서희(30·팀매드)가 메인이벤트출격한다.

오는 12월 15일 그랜드 힐튼 서울에서 열리는 대회는 아톰급 타이틀전에서 함서희와 박정은(22·팀 스트롱울프)이 대결한다. 로드FC 대회 역사상 첫 국내 여성 파이터들끼리의 타이틀전이다.

함서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성 파이터로 세계랭킹 1위다. 오랜 경력에 강력한 타격, 그라운드 기술까지 더해져 세계에서 적수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로드FC 아톰급 타이틀전에서 쿠로베 미나를 꺾고 챔피언이 된 뒤 진 유 프리에도 KO로 제압해 1차 방어에 성공했다.

상대인 박정은은 삼보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의 파이터다. 2015년 로드FC에 데뷔한 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경기에 출전, 경험을 쌓아왔다. 강한 상대와의 경기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패기가 인상적이다.

이예지(19·Team J)와 이수연(24·로드 짐 강남 MMA)의 대결도 결정됐다. 이예지는 로드FC 센트럴리그 출신으로 프로 무대에서는 ‘여고생 파이터’로 주목 받았다. 그라운드 기술이 장점으로 암바가 주특기다. 데뷔전에서 일본의 베테랑 시나시 사토코와 대결해 패했지만 선전하며 기대를 모았다. 2년 뒤 진행된 재대결에서는 발전된 기량으로 승리하며 지난 패배를 설욕했다.

이수연은 지상파 최초의 격투 오디션 프로그램 ‘겁 없는 녀석들’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주짓수 블루벨트의 파이터로 데뷔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마지막으로 ‘케이지의 악녀’ 홍윤하(29·송탄MMA 멀티집)와 백현주(20·광주승리집)의 대결도 확정됐다. 홍윤하는 악바리 근성이 돋보이는 파이터, 백현주 역시 센트럴리그에서 악착같은 모습으로 눈길을 끈 유망주다. 장은성 기자 award@donga.com



특독 튀는 아이디어와 지역문화 발전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프로젝트로 높은 경쟁률을 뚫고 2기 짝꿍같이 선정된 cn에듀테인·댄스조아·태권브이·사람과예술팀의 활동모습. 사진제공 | 코리아문화수도 조직위

## 어린이 오케스트라부터 청소년 댄스팀까지 ‘다함께 짹짹’

올해도 전국 27개 지역 29개 팀 선정



때깔, 빛깔, 색깔에서 ‘기깔나게’ 이름을 따온 코리아문화수도 조직위원회의 야심찬 지역문화 활동가 발굴프로젝트 ‘다함께 짹짹’. 조직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기 짹짹 29개 팀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전국 27개 지역, 22개 분야를 망라한 팀들이다.

‘인뮤직(경기 용인)’은 지난해 1기 때에도 선정됐던 ‘강팀’이다. 용인지역 어린이들에게 오케스트라를 통해 하나가 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주인공 되던

날’이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용인 인뮤직 앙상블 단원의 자녀들과 석석 초등학교 오케스트라가 함께 공연해 주목받기도 했다.

음악을 전공한 학부모들로서는 잊었던 음악에 대한 열정을 다시 사를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이다. 경기어린이박물관에서 발표회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상설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이들이 예술을 사랑하는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최대 목표다.

‘cn에듀테인(경기부천)’팀의 사업명은 ‘리듬타go, 신나go’. 쥘레, 북, 웨이커 등의 악기를 활용해 흥취연주를 펼치고 있

다. 청년, 중장년층을 위한 문화사업을 위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국구 팀’이기도 하다.

‘신나는 문학놀이(경기 고양)’팀은 연극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한 강사와 아이들이 기존 이야기를 새로운 이야기로 제작하거나 창작희곡을 바탕으로 연극, 인형극을 무대에 올리는 ‘신나는 무대 위 문학’ 사업을 내세워 짹짹같이 선정됐다.

안산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 댄스팀 ‘라이징스타’는 아이들이 꿈을 향해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주는 프로젝트인 ‘꿈을 꿔요 땀땀땀’을 진행하고 있다. ‘댄스조아(충남 천안·아산)’팀도 춤을

기반으로 한 짹짹 팀이다. 사회체육의 일환으로 K-pop 댄스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종목표는 멋진 댄스 커버공연이다.

‘태권브이(충남 천안)’의 사업은 타이틀만 봐도 감이 온다. ‘왕따방지 태권도’. 태권도 시범에 참여하면서 왕따방지는 물론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말자는 캠페인까지 진행한다.

‘사람과예술(충남 청양군)’의 ‘오방색깔 흙으로 빚기도 눈길을 끄는 사업이다. 전기를 이용해 코일링 작업으로 도자기를 만든다. 청양군은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이다. 평소 예술분야에 갈증을 느껴 온 이 지역 학부모, 학생들이 사업의 추진을 강력하게 요청해 왔다는 후문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